

원저

《黃帝明堂經》에 관한 文獻 研究

손성철 · 김갑성 · 윤종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Research of 《Huangdimingtangjing(黃帝明堂經)》 with a treatise

Sohn Sung-chul, Kim Gab-sung and Yoon Jong-hwa*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 : In this thesis we researched 《Huangdimingtangjing(黃帝明堂經)》

Methods : We referred to 《Mingtangkongxuezhenzhiyao(明堂孔穴鍼灸治要)》 in 《Huangdijiyijing(黃帝甲乙經)》 and 《Huangdineijingmingtang(黃帝內經明堂)》

Results and Conclusions : 《Huangdimingtangjing(黃帝明堂經)》 was written between West-Han(西漢) dynasty and East-Han(東漢) dynasty which was a summarized book about acupuncture point before Han(漢) dynasty.

1. "Mingtang(明堂)" means originally the hall where the emperor carried out politics but became a pronoun of acupuncture point in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2. 《Huangdimingtangjing(黃帝明堂經)》 contains Five-elements theory which is specific property of Han(漢) dynasty. A many same named acupuncture point gathered not until Wu(武) emperor. The acupuncture point named "Jimen(期門)" which is the name of a military officer in Wu(武) emperor and cannot be found in 《Huangdineijing(黃帝內經)》, I contains "long(隆)" which is the name of Shang(商) emperor. As such it was written between West Han(漢) dynasty and East Han(漢) dynasty.
3. 《Huangdimingtangjing(黃帝明堂經)》 can be assumed the original edition by 《Mingtangkongxuezhenzhiyao(明堂孔穴鍼灸治要)》 in 《Huangdijiyijing(黃帝甲乙經)》 and 《Huangdineijingmingtang(黃帝內經明堂)》

· 접수 : 2003년 3월 21일 · 수정 : 2003년 3월 21일 · 채택 : 2003년 3월 22일
· 교신저자 : 윤종화, 경북 경주시 용강동 357번지 동국대학교 부속 경주한방병원 침구1과
Tel. 054-770-1257 E-mail : item0916@chollian.net

4. The scholarship value of 《Huangdimingtangjing(黃帝明堂經)》 is rich in acupuncture point which described in detail futher more made possible of wide treatment. And also it referred a subordination of five shu(俞) acupuncture point in 《Huangdineijing(黃帝內經)》

Key words : Mlntang(明堂), 《Huangdimingtangjing(黃帝明堂經)》, 《Mingtangkongxuezhenjuzhiyao(明堂孔穴鍼灸治要)》, 《Huangdijiyijing(黃帝甲乙經)》, 《Huangdineijing(黃帝內經)》, 《Huangdineijingmingtang(黃帝內經明堂)》

I. 緒 論

馬王堆의 漢墓 錦書에서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이 發見됨에 따라 《黃帝內經》이 形成되기 以前의 初期 經絡의 形成과 《黃帝內經》 以前의 初步의인 鍼灸·經絡學的인 變遷史가 研究 될 수 있었고 이후 漢·魏 以前의 鍼灸書籍은 《黃帝內經》 중의 《靈樞》와 《黃帝明堂經》으로 代表될 수 있는데 《黃帝明堂經》은 隋·唐時代에는 鍼灸學 教材로까지 活用되었지만¹⁾ 이후 다양한 注釋本 外에 그 原本은 消失되어 전해지지 않는 실정으로 《鍼灸甲乙經》 卷三의 《明堂孔穴鍼灸治要》¹⁾와 日本으로 傳播되고 發見된 楊上善의 《黃帝內經明堂》 傳本을 中心으로 《黃帝內經》의 160餘個에 불과한 腧穴²⁾을 部位와 名稱을 擴充하므로써 이후 腧穴·鍼灸學的 發展에 重大한 影向을 끼친 《黃帝明堂經》에 대한 文獻的 研究를 《黃帝內經明堂輯復》³⁾을 中心으로 鍼灸學的 意義를 考察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黃帝明堂經》 解題

《黃帝明堂經》은 다른 名稱으로 《黃帝內經明堂》⁴⁾, 《內經明堂》⁵⁾, 《明堂流注》⁶⁾, 《明堂孔穴鍼灸治要》⁷⁾ 等으로 稱하며, 簡略히 《明堂經》 또는 《明堂》으로 稱하기도 한다. 古代 一部分의 鍼灸書는 《黃帝明堂經》의 內容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역시 “明堂經” 또는 “明堂”으로 稱하는데, 例를 들면 陳延의 《小品方》의 《明堂》, 《太平聖惠方》과 《鍼灸資生經》의 《明堂經》은 《黃帝明堂經》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理由로 唐代의 楊玄操는 《黃帝明堂經》을 “黃帝正經”⁸⁾으로, 孫思邈은 “明堂正經” 또는 “明堂本經”⁹⁾으로 稱하여 其他의 《明堂經》과 區別하였다.

古醫書中에 腧穴을 記述한 鍼灸書籍에 “明堂”이라는 글자가 첫머리에 오는 理由로 敦熒殘卷은 《明堂五臟圖》¹⁰⁾에 밝히기를 “明堂二字 其義不輕 明者命也 堂者 軀也”라고 하여 “明堂” 두 글자는 본래 醫門과는 關聯이 없는데도 “生命의 軀”라는 뜻을 含蓄하고 있고 또한 北宋의 醫官인 夏竦은 “昔我聖祖之間岐伯也 以爲善言天者 必有驗于人 …… 泊雷公請問其道 乃坐明堂以授之 後世言明堂者以此”¹¹⁾라고 하였다. 《素問·著至教論》에 “黃帝坐明堂 召雷公而問之”는 黃帝가 明堂에 앉아 雷公으로부터 陰陽, 表裏, 上下 等의 “醫道”를 傳受 받았다고 하여 後世에 “醫道”에 관한 書籍에 “明堂” 두 글자를 쓰기를 選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腧穴에 관한 書籍 중 “明堂”을 題目에 포함한 書籍이 많은 理由에 대해 살펴

보면 漢·武帝에 施行되었던 明堂制度에 대하여 《淮南子·精神訓》에는 “明堂 王者布政之堂……凡十二所 王者月居一室 告朔朝歷 頒宣其政 謂之明堂”이라 하여 十二月에 應하는 十二宮의 明堂이 있고 明堂의 月令이 各 篇名이 되는 《明堂月令》이 있는데 月令과 關係가 있는 《明堂蝦蟆圖》(隋書·經籍志)와 같은 鍼灸 書籍이 《明堂》을 使用하게 된다. 腧穴과 關聯 있는 《明堂流注》, 《明堂孔穴》(隋書·經籍志), 《明堂孔穴鍼灸治要》와 같은 書籍은 “明堂”이 書名에 있는데 以後 類似한 書名이 점차 늘어나 “明堂”은 “腧穴”의 代名詞가 되어 上記 書名은 《明堂》 혹은 《明堂經》으로 稱하게 되고, 역시 腧穴圖도 또한 《明堂圖》로 稱하게 되며, 諸家의 書名도 《黃帝明堂》, 《秦承祖明堂》과 같이 腧穴書와 關係없는 書籍까지도 《明堂》 《明堂圖》를 붙이게 되었는데 例를 들면 北宋의 王惟一의 《銅人腧穴鍼灸圖經》을 《幼幼新書》에 《明堂》, 《資生經》에는 《銅人明堂》 등으로 表現하였다.

2. 《黃帝明堂經》이 著作된 時期

《黃帝明堂經》은 《漢書·藝文志》에는 記錄이 없고 魏末 皇甫謐의 《鍼灸甲乙經》에 처음으로 早期의 傳本의 하나인 《明堂孔穴鍼灸治要》가 記載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考察을 通何如 본다면 漢代에 著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黃帝明堂經》의 全體 內容을 보면 十二經의 五俞穴이 五行에 配屬되는 漢代의 醫學 特徵인 五行學說에 대한 內容이 많다. 以外에 約 三分의 一은 別名과 더불어 同名穴이 있는데 例를 들면 “月水”를 “月事” 또는 “經水”로 “瘰癧”은 “瘰適”과 같이 統一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地域에 따라 文獻 資料의 編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秦代에는 비록 文字는 統一되었지만 統治時期가 단지 15년에 不遇하여 完全히 統一시키기가 어려웠고 漢代에 이르러서야 漢武帝가 統治하던 時期에 全國의 圖書를 모아 宮內에 收藏하

는 館舍를 建立하여 各其 다른 地域의 文獻을 大量으로 收集하는 것이 可能하였다. 셋째, 《黃帝明堂經》에 “期門”이라는 腧穴이 있는데 그 名稱의 由來에 대해 살펴보면 “期門”은 원래 漢·武帝 建元三年(紀元前 138年)에 생긴 武官의 名稱이고 “期門”이 將軍之官인 肝의 募穴이 된 것으로 이로 보아 《黃帝明堂經》은 紀元前 138年 以後의 著作으로 볼 수 있고 《素問》과 《靈樞》에 “期門”이라는 腧穴名이 없는 것으로 보아 《黃帝明堂經》은 《內經》 以後의 著作으로 볼 수 있다. 넷째, 漢·高祖의 이름은 “隆”인데 그 이름을 使用하는 것을 꺼려 地名인 “隆慮”를 “林慮”로 變명인 “癰”을 “淋”¹²⁾으로 고쳤는데 《黃帝明堂經》에는 모두 “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著作된 時期를 적어도 漢·高祖가 統治하던 時期 以前 즉 紀元前 106年 以前으로 볼 수 있다. 以上 네가지 根據를 綜合하여 볼 때 《黃帝明堂經》은 西漢末에서 東漢末 사이에 著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黃帝明堂經》의 傳本

《黃帝明堂經》의 早期 傳本의 하나인 《明堂孔穴鍼灸治要》는 《鍼灸甲乙經》의 內容의 一部分이 되어 保存되고 있고 楊上善의 《黃帝內經明堂》의 第一卷과 序文¹³⁾에 또 다른 傳本이 있는데 이 두 傳本의 源流와 特徵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鍼灸甲乙經》 傳本

《鍼灸甲乙經》은 《素問》, 《鍼經》과 《明堂孔穴鍼灸治要》의 세가지 書籍으로 編成되었다. 現在의 《鍼灸甲乙經》과 《素問》, 《靈樞》를 비교해 보면 《鍼灸甲乙經》은 上記 세가지 書籍을 合編하여 새롭게 分類하여 整理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鍼灸甲乙經》의 內容은 전부 107,211字인데 그중 24,371字는 現存하는 《素問》, 《靈樞》에서 찾을 수 없고 後人이 注文한 것을 빼면 즉 所謂 《明堂孔

穴鍼灸治要》의 文字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¹⁴⁾ 이를 楊上善이 注한 “最善本”인 《黃帝內經明堂》殘卷¹⁵⁾ 原文과 對照하면 거의 類似하므로 《鍼灸甲乙經》에 收錄된 《明堂孔穴鍼灸治要》는 《黃帝明堂經》의 一種의 早期 傳本임을 알 수 있고 皇甫謐이 《素問》, 《鍼經》과 《明堂孔穴鍼灸治要》의 세 書籍 중에서 서로 重複되는 部分을 削除하여 《鍼灸甲乙經》을 再編輯하였다고 할 수 있다.

上記 하였듯이 《鍼灸甲乙經》의 《明堂孔穴鍼灸治要》는 《黃帝明堂經》의 早期 傳本인데 《鍼灸甲乙經》에 依據하여 다시 《黃帝明堂經》을 編輯한다면 現在의 鍼灸 經穴 部分을 보면 다음과 같은 問題를 提起할 수 있다. 첫째, 《鍼灸甲乙經》中 《明堂孔穴鍼灸治要》에 해당되는 文字는 現在의 《素問》, 《靈樞》에서 찾을 수 없는 24,371字 중에서 다른 時代에 걸쳐 後人이 注文한 것을 除外하면 卽 《黃帝明堂經》만의 文字인데 數百年의 時代를 거치며 世人의 誤作이 添加되었을 可能性이 있으므로 여러 史料를 통하여 자세히 鑑別되어야 한다. 둘째, 《鍼灸甲乙經》중 많은 混亂이 있는 七個의 同名異穴을 밝혀야 하는데 例를 들면 《鍼灸甲乙經》卷七에 “虛, 日西發, 臨泣主之”의 “臨泣”은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 卷十에 “虛, 日西而發者, 臨泣主之, 穴在目眦上入發際五分陷者”로 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頭部의 “臨泣”穴을 取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孫思邈이 말한 것이 不正確한 것에 대하여는 간단히 《鍼灸甲乙經》의 取穴體系를 통하여 判定할 수 있는데 《鍼灸甲乙經》卷七에서 卷十二 中の 各篇의 病症의 取穴 順序는 卷三의 腧穴 排列 順序와 같은데 卽 먼저 頭面 軀幹部의 腧穴을 取하고 後에 四肢의 腧穴을 取하는데 頭, 項, 背, 面, 胸, 腹의 順序이고 流注 方向은 自上而下와 中央에서 兩旁이고 四肢部는 먼저 手部의 腧穴을 取하고 後에 足部의 腧穴을 取하는데 手足部는 먼저 陰經의 腧穴을 取하고 後에 陽經의 腧穴을 取하는데 陰經은 太陰, 厥陰, 少

陰의 順序이고 陽經은 陽明, 少陽, 太陽의 順序이며 流注 方向은 自下而上이다. 이와 같은 取穴 規律을 보면 《鍼灸甲乙經》卷七 第五에 足陽明 腧穴인 “解谿主之”의 病症이 있고 그 다음에 足少陽 腧穴인 “丘墟主之”의 病症이 있는 것과 같이 足少陽 腧穴인 “臨泣”에 해당하고 頭部의 “臨泣”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楊上善 注本 《黃帝明堂經》 殘卷

現在 日本 仁和寺에 있는 楊上善의 《黃帝內經明堂》 卷子本은 2種으로 序文과 卷一 肺經部分¹³⁾만 있는데 그 하나는 永仁 四年(1296年) 丹波長高의 抄寫本이고 다른 하나는 永德三年(1383年)의 抄寫本으로 각각 抄寫한 年號를 따서 “永仁本”과 “永德本”이라 하는데 日本 東洋醫學研究會에서 影印하여 1981年 《東洋醫學善本叢書》를 出版하였는데 그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楊上善은 古代의 三卷本인 《黃帝明堂經》을 改編하였는데 349個 穴을 經脈에 따라 排列하고 十二經穴을 各各 一卷씩으로 奇經八脈을 다시 一卷으로 하여 十三卷으로 構成하였다.

둘째, 各卷의 첫머리에는 各 臟腑의 解剖, 生理, 病理와 經脈循行, 所屬經穴 등의 內容을 두었는데 그 아래에는 注文이 없다.

셋째, 楊上善의 注文의 가장 두드러진 特徵은 《黃帝明堂經》에 있는 349個 穴의 穴名의 意義를 解釋한 것으로 穴名을 解釋한 것은 楊上善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아니나 全面的으로 解釋한 것은 楊上善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楊上善은 《黃帝內經明堂》에 널리 다른 傳本을 구하여 精校하게 注를 달았는데 이는 높이 評價할만 하다. 그 內容은 《黃帝明堂經》의 結構, 體系, 傳本源流를 考察하여 重要한 史料가 될 수 있고 《鍼灸甲乙經》 傳本과 比較한 것은 中疇한 參考가 될 수 있는데 그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甲乙經傳本		楊上善注本	
中府	手太陰之會	手足太陰之會	
天府	暴痺內逆 肝肺相傳…	暴痺內逆 肝肺相搏…	
俠白	咳 乾嘔 滿	咳 乾嘔 煩滿	
孔最	厥	振寒臂厥	
列缺	兩乳下二寸堅, 寒熱胸背急 喉痺 咳上氣 喘掌中熱 數欠伸 汗出	兩乳下三寸堅.	
經渠		寒熱胸背急痛 喉中鳴 咳上氣 喘 掌中熱 數欠 汗出… 臂內廉痛 喘逆 心痛 欲嘔	
太淵	痺 逆氣 寒厥 急 煩心	痺 逆氣 寒厥 急熱煩心	
魚際		虛熱 酒漸起毛惡風 舌上黃 身熱 爭則喘咳 痺走胸膺背不得息 頭痛不堪 汗出而寒	
少商	在手大指端內側 去爪甲如韭叶	在手大指端內側 去爪甲角如韭叶	

以上과 같이 楊上善 注本 卷一은 《鍼灸甲乙經》의 傳本의 誤謬를 고치고 脫落된 部分을 補充하였는데 《黃帝明堂經》을 研究하는데 있어 重要한 價値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 《黃帝明堂經》을 引用한 諸書

《黃帝明堂經》은 隋唐時代에 널리 전해지고 있는데 楊上善의 《黃帝內經明堂》 注文을 보면 다른 傳本도 전해지고 있고 國家의 命에 의해 修正되고 注釋된 傳本이 나타나고 인근 國家로의 傳播가 進行되어 비교적 큰 影響을 미치게 되어 비슷한 種類의 書籍이 《黃帝明堂經》의 內容을 引用하였다. 現存하는 醫書중에 《黃帝明堂經》의 內容이 비교적 많이 記載되어 있는 書籍은 《外臺秘要方》, 《千金要方》, 《千金翼方》과 日本의 古醫書인《醫心方》인데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

1) 《鍼灸甲乙經》을 引用한 傳本 醫書

① 外臺秘要方

《外臺秘要方》 卷三十九에 “明堂灸法”이 있는데 “十二身流注五臟六部明堂” 部分은 腧穴과 그 主治, 病症 등의 內容을 記述하였는데 腧穴은 五臟六腑 十二人에 分屬되고 各 臟(腑)人의 첫머리에는 “甲乙經” 三字가 있다. 《外臺秘要方》의 “明堂”에 관한 內容은 《鍼灸甲乙經》에서 直接 引用한 것인데 《鍼灸甲乙經》 중의 《明堂孔穴鍼灸治要》의 內容을 完全히 記載한 것이 아니고 其他의 《黃帝明堂經》 傳本을 參考하였다고 한다.

② 其他 醫書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과 林億 등이 새롭게 校正한 《素問》, 《千金要方》 注文과 《聖濟總錄》 중에 《鍼灸甲乙經》의 傳本이 비교적 많이 記錄되어 있다. 그중 《備急千金要方》, 《聖濟總錄》 두 書籍은 비록 《外臺秘要方》처럼 《鍼灸甲乙經》 傳本의 文字가 完全하지는 않지만 原形에 가까운 條文을 수록하였다. 以外에 明代 樓英은 《醫學綱目》에 《鍼灸甲乙經》 卷七부터 卷十二 중의 腧穴 主治와 關聯있는 대부분의 文字를 收錄하였다.

2) 楊上善 注本 醫書의 引用

① 醫心方

《醫心方》은 丹波康賴가 永觀二年(984年)에 編著한 것으로 卷二에 “孔穴主治法第一”이라 하여 全篇의 660個의 腧穴 中 649個의 腧穴을 《明堂經》에서 拔萃하였다고 한다¹³⁾. 여기서의 《明堂經》은 一種의 注釋本으로 楊上善의 《黃帝內經明堂》의 注本이라 할 수 있다. 以外에 《黃帝內經太素》의 注文이 많이 引用되었는데 이 《黃帝內經太素》의 注釋 중에는 《黃帝內經明堂》에서 많이 引用되었다. 《醫心方》의 《明堂經》을 살펴보면 특히 中府, 天府, 俠白, 尺澤, 孔最, 列缺, 經渠, 太淵, 魚際, 少商의 十穴을 楊上善이 注本한 《黃帝內經明堂》殘卷과 對照해 보면 上記 十穴의 部位와 刺灸法 部分은 《黃帝

內經明堂》殘卷과 完全히 同一하고 十穴의 主症은 楊上善이 注本한 것으로 다른 書籍에서는 一切 發見 할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 《醫心方》의 《明堂經》은 楊上善의 《黃帝內經明堂》임을 알 수 있다.

② 其他 醫書

《黃帝內經太素》卷八, 卷十一의 楊上善의 注에 “十二經脈行處及穴名 略在 《明堂經》 具釋也”, “諸輸穴名義 已 《明堂》 具釋也”라는 句節이 있는데 “十二經脈行處”와 “諸輸穴名義”는 楊上善의 《黃帝內經明堂》에서만 볼 수 있는 特徵的인 句節로 《黃帝內經太素》의 注文은 《黃帝明堂經》의 原文에 楊上善이 注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以外에 日本 正歷二年(991年) 具平親王의 《弘決外典抄》에 引用된 《黃帝內經明堂》十三條, 永仁元年(1293年)의 惟宗時俊의 《醫家千字文》에 引用된 《黃帝內經明堂》十七條¹⁶⁾, 本文 十二條, 注文五條 등이 있는데 《黃帝明堂經》의 原形을 살필 수 있는 素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其他 傳本을 引用한 醫書

隋唐時代에는 여러 種類의 《黃帝明堂經》傳本이 流行하였는데 楊上善의 《黃帝內經明堂》注文 中에 “有本”, “或本”의 다른 內容이 있다. 이에 孫思邈은 이를 區別하기 위하여 《千金要方》卷三十에 “明堂正經”으로 表現하여 기타의 《明堂經》과 區別하였다.

5. 《黃帝明堂經》傳本의 共通點과 差異點

위에서 記述한 두 種類의 《黃帝明堂經》의 傳本은 體系와 內容에 있어 약간의 差異點이 있는데 이를 區別하면 다음과 같다

1) 體系

① 腧穴의 排列 方式

《鍼灸甲乙經》傳本의 腧穴 排列 方式은 四肢部의 腧穴은 分經하고 頭面體幹部의 腧穴은 分行하며 또한 四肢部의 十二經의 腧穴들은 모두 自下而上으로 排列되어 있다. 楊上善의 《黃帝內經明堂》중의 腧穴들은 모두 經에 따라 排列되어 있으며 또한 卷一의 肺經을 보면 經脈 流注 方向이 《靈樞·經脈》篇의 經脈 流注 方向과 같은데 但 楊上善은 《黃帝內經明堂》에서는 十二經脈 五腧穴 流注의 內容에 대하여는 保留하고 있다. 肺經을 예를 들면 “肺出少商……流于魚際……注于太淵……行于經渠……入于尺澤”과 같이 《靈樞·經脈》篇에 提示된 自胸走手를 따르고 있으나 五俞穴의 流注는 自下而上으로 서로 相反되어 있다. 이러한 排穴 方法은 楊上善이 새롭게 編輯한 것으로 《黃帝內經明堂》原書(三卷)는 이와 같지 않다. 따라서 위에 記述한 두 種類의 排穴 方法은 《鍼灸甲乙經》傳本의 《黃帝明堂經》舊本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腧穴 主症 形式

위에 記述한 두 種類의 傳本은 基本 內容의 記述 順序에서 腧穴의 主症을 除外하면 完全히 같다고 할 수 있는데, 모두 “穴名, 別名, 部位, 歸經, 刺灸法”의 敘述 形式을 取하고 있다. 단지 差異點은 腧穴의 主治症을 敘述하는 形式에서 楊上善의 《黃帝內經明堂》注本에는 腧穴의 主治症을 相應하는 腧穴의 “刺灸法”項目 아래에 두었는데 “某穴 主某病”의 基本 型式을 取하고 있고 《鍼灸甲乙經》傳本은 腧穴의 主治 病症을 相應穴의 “刺灸法”項目 아래에 主治症을 羅列하지 않고 몇 개의 項目으로 나누어 各篇에 歸屬시켰는데 그 基本 形式은 “某病, 某穴主之”이다. 그 形式에 있어 《黃帝明堂經》의 原形에 더 가까운 것은 《鍼灸甲乙經》이라고 할 수 있는데 《黃帝明堂經》의 각각의 病症은 어떤 한 經脈을 取하고 있지 어떤 腧穴을 取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內容

위에 記述한 두 種類의 《黃帝明堂經》 傳本의 內容上의 차이는 腧穴의 刺灸法과 脈氣의 發現의 兩方面에서 나타나며 그 다음은 腧穴의 部位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差異點의 絶對多數는 後人들의 筆寫하는 過程에서 잘못 옮기거나 함부로 고쳐서 생긴 것으로 禁灸穴을 例로 들어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醫心方》 卷二에는 다음과 같은 17個의 禁灸穴, 卽 頭維, 承光, 腦戶, 風府, 瘡門, 人迎, 絲竹空, 承泣, 脊中, 乳中, 石門, 淵液, 天府, 經渠, 地五會, 伏兔, 鳩尾가 記載되어 있는데, 《鍼灸甲乙經》과 《備急千金要方》에는 禁灸穴이 모두 24穴인데 《醫心方》과 比較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이는 대부분 後人들과 關係가 있으니 특히 宋人들이 添加한 것이 많다. 宋人들이 아직 校正을 보지 않은 《新雕孫真人千金方》에는 但 19個의 禁灸穴이 나오는데 이는 《醫心方》과 比較해 보면 鳩尾 1穴이 漏落되고 3穴이 追加되었는데 耳門, 氣衝, 下關은 禁灸穴이 아니다. 따라서 現在의 《備急千金要方》에 增加된 5個 穴은 모두 宋人이 補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陣延之는 《黃帝經》에 있는 禁灸穴 18個¹³⁾를 引用하였는데, 《新雕孫真人千金方》의 下關 1穴이 많은 것을 除外하면 18穴이 完全히 같다. 이에 現在의 《鍼灸甲乙經》 卷五의 禁灸穴 중에 대한 注文이 陣延之가 《黃帝經》에서 引用한 文장에서도 보여짐을 보면 《黃帝鍼灸經》 혹은 《黃帝三部鍼灸經》의 약칭인 《黃帝經》이 또한 오늘날의 《鍼灸甲乙經》이며 이는 《黃帝明堂經》의 禁灸穴이 원래는 18個이며 그중 “耳門, 氣衝”은 絶對로 禁灸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醫心方》과 《甲乙經》 卷三 中の 灸法을 《新雕孫真人千金方》, 《黃帝經》과 比較하면 絶對 禁灸穴이 아닌 下關 1穴이 많으며 그 外의 각 書籍의 많은 穴들이 後人에 의해 添加된 것이다. 또한 “陽輔” 穴의 部位 같은 경우는 《醫心方》 《備急千金要方》에 모두 “在足外踝上輔

骨前, 絶骨端如前三分, 去丘墟七寸”이라 되어 있는데 《鍼灸甲乙經》, 《外臺秘要方》에는 “外踝上”이란 文句 뒤에 “四寸”이란 二字가 들어 있으니 뒤에 나오는 “去丘墟七寸”과 比較해 보면 서로 맞지 않는다. 또한 《鍼灸甲乙經》, 《外臺秘要方》의 “陽輔” 穴은 모두 “外丘” 穴 뒤에 位置하고 있으니 이는 “四寸” 二字가 後人에 의해 함부로 添加된 證據이며, “三陰交” 穴의 部位도 이러한 例에 屬한다.

6. 《黃帝明堂經》의 學術的 價値

《黃帝明堂經》의 學術的 價値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腧穴의 總數로써 《黃帝明堂經》에는 모두 349穴이 記載되어 있는데 이중 《內經》에 記載된 穴은 163穴(25個의 別名 포함) 뿐이며, 186穴이 새로 增補된 것이다. 또한 《黃帝明堂經》 中の 腧穴의 部位도 《黃帝內經》의 相應하는 腧穴의 記載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둘째, 腧穴의 主治 病症數로서 《黃帝內經》 中の 鍼灸 腧穴의 治療 病症은 매우 적은 편인데 《黃帝明堂經》 중에 記載된 腧穴의 主治 病症은 모두 270個를 超過한다.

셋째, 鍼灸 腧穴의 理論方面에서도 비교적 큰 發展을 이루었다. 《靈樞·本輸》에는 단지 十一經의 五腧穴이 記載되어 있고 心經의 五腧穴 內容은 缺如되어 있다. 《黃帝明堂經》은 이러한 腧穴의 理論上의 空白을 補充하여 줄 뿐 아니라 《內經》의 十五絡穴 以外에도 別絡이란 部分에 대해서도 言及하고 있는데 足太陽의 경우 絡穴인 “飛陽” 외에도 “委陽”이란 別絡穴을 言及하고 있으며 任脈의 絡穴인 “鳩尾” 외에도 別絡으로 “會陰”을 提示하고 있다.

물론 《黃帝明堂經》에도 完全하지 못한 部分들이 一部 存在하는데 例를 들면 心包經의 경우 相應하는 經穴, 募穴, 腧穴이 記載되어 있지 않다. 經穴의 數 또한 《內經》과 比較하면 大의 增補되

어 있지만 一部 經穴에 있어서 “脈氣所發”의 內容 등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다.

III. 考 察

《黃帝明堂經》의 學術的인 特徵 및 古代 醫學發展史에 있어서의 地位는 “最初의 腧穴學 專門 醫書”라고 할 수 있다. 馬王堆에서 出土된 經脈 著作에는 어떠한 腧穴의 名稱도 나타나지 않고 단지 各種 病症을 각 經脈에 歸屬시키고 이것으로 施治의 原則을 삼았다. 西漢의 淳于意的 醫案에 나타나는 刺灸法에는 단지 經脈의 名稱만을 言及한 것도 있고 具體的인 部位를 가리킨 것도 있지만 여전히 具體的인 穴位의 名稱은 없다. 《素問》, 《靈樞》에서 刺灸法을 言及할 때 거의 대부분 經脈만을 言及하고 腧穴은 言及하지 않았다. 두 經典에서 실제로 舉論한 穴位는 160餘個에 不過하며²⁾ 어떤 腧穴에서는 部位만 있고 名稱은 없다. 그러나 《黃帝明堂經》에서는 腧穴의 數가 增加하여 349個에 이르고 또한 名稱과 位置의 說明이 모두 있다. 예를 들면 《靈樞》에서 言及한 “三節之旁”을 具體化하여 “肺俞 在第三椎下兩傍各一寸五分”이라 하였다. 또한 關聯된 腧穴 아래에 각 腧穴의 特性을 記載하였다. 예를 들면 “三陰交”는 “足太陰, 厥陰, 少陰之會”, “命門”은 “督脈氣所發”, “孔最”는 “手太陰之郄”, “中府肺募也”라고 하였다. 그리고 《靈樞·九鍼十二原》에 “所出爲井 小溜爲榮 所注爲輸 所行爲經 所入爲合”이라 하여 五行配屬은 없는데 각 經脈의 “井, 榮, 輸, 經, 合”의 다섯 特定 穴位를 각기 五行屬性에 配屬시켜 새로운 腧穴學 理論을 構成하였고 以後 《難經·六十二~六十五, 六十八, 七十三, 七十四 等의 難》에는 이를 腧穴學의 理論으로 삼아 專門的으로 論하였다. 그리고 각 腧穴마다 刺鍼의 깊이, 留鍼시

간, 灸의 “壯”數 및 禁侵 혹은 禁灸를 說明하였다. 따라서 《黃帝明堂經》은 鍼灸療法の 發展過程에서 “經脈主治”에서 “腧穴主治”로의 傳變 卽 經脈中心에서 腧穴 中心으로의 重要한 轉換點이 되는 契機가 되어 醫家들이 어떤 腧穴의 特定한 治療作用 혹은 某種의 疾病에 어떠한 腧穴을 選擇하여야 하는지의 指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結 論

《黃帝明堂經》은 大略 西漢末에서 東漢 延平年 사이에 完成된 書籍으로 本書는 漢代 以前의 鍼灸·腧穴 文獻에 대한 總括을 이룬 腧穴學 專門 書籍이라 할 수 있다.

1. “明堂”은 原來 “王者布政之堂”인데 점차 “腧穴”의 代名詞가 되었다.

2. 《黃帝明堂經》은 漢代의 醫學 特徵인 五行學說에 대한 內容이 많은 점, 同名穴이 많은데 漢武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各其 다른 地域의 醫書를 收藏하는 것이 可能한 점, “期門”이라는 腧穴이 있는데 漢武帝 時代의 武官의 名稱이며 《黃帝內經》에는 없는 점, 漢殤帝의 이름인 “隆”이 쓰여 있는 점 등을 통하여 西漢末에서 東漢末 사이에 著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黃帝明堂經》은 주로 皇甫謐의 《鍼灸甲乙經》에 收錄된 《明堂孔穴鍼灸治要》와 日本에 傳播된 楊上善의 注本 傳本인 《黃帝內經明堂》에서 原本을 推測할 수 있다.

4. 《黃帝明堂經》의 學術的 價値는 《黃帝內經》

에 비해 腧穴의 數와 部位가 具體的이고 明確하다는 점과 治療 病症의 增大, 《黃帝內經》의 五俞穴의 具體的인 五行配屬과 別絡에 대한 言及 등으로 할 수 있다.

V. 參考文獻

1. 馬繼興：中醫文獻學，上海科學技術出版社，上海，1990，p.296.
2. 南京中醫學院編：鍼灸學講義，上海科學技術出版社，上海，1965，p.12.
3. 小曾戶丈夫 等：黃帝內經明堂輯復，中華經典醫書 第三集，中國醫藥科技出版社，北京，1999，pp.269-390.
4. 楊上善：黃帝內經明堂，東洋醫學叢書，日本東洋醫學會 影印出版，日本，1981.
5. 王冰：黃帝內經 素問 卷二十八·通評虛實論，中華經典醫書 第三集，中國醫藥科技出版社，北京，1999，p.84.
6. 楊上善：黃帝內經太素 卷十一，大成醫學社，서울，1990，p.161.
7. 皇甫謐：鍼灸甲乙經 自序，鍼灸名著集成，華夏出版社，北京，1997，p.6.
8. 丹波康賴：醫心方 卷二，人民衛生出版社，北京，1955，p.57.
9. 孫思邈：備急千金要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2，p.508，p.518.
10. 馬繼興 主編：敦煌古醫籍考釋，江西科學技術出版社，1988，p.11.
11. 銅人腧穴鍼灸圖經 夏竦序，人民衛生出版社，北京，1955，p.167.
12. 李今庸：中醫古代病症名詞考，湖北中醫雜誌 第2卷 1984，p.1.
13. 丹波康賴：醫心方，上海科學技術出版社，1998，pp.1277-1287.
14. 黃龍祥：黃帝明堂經輯校，中國醫藥科技出版社，上海 1988，p.242.
15. 陳延之：小品方 殘卷，中華經典醫書 第三集，中國醫藥科技出版社，北京，1999，pp.209-225.
16. 東洋醫學研究會：篠原孝市黃帝內經明堂總論，東洋醫學善本叢書，日本 1981，第8卷 p.165.